

일상 속 식량작물 연구성과 보러 오세요

국립식량과학원 캐릭터 '식냥이'가 소개하는 식량작물 주요 연구 성과... 농진청 농업과학관서 22~30일 특별전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2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전주시에 있는 농업과학관에서 '어서와 식냥이 방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국립식량과학원 캐릭터인 '식냥이'의 방처럼 꾸민 관람 공간에 식량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국립식량과학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자리다.

'식냥이'는 '식량'을 소리 나는 대로 발음했을 때 [식냥이]에 착안해 '식량'공간을 지키는 '고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귀엽고 친숙한 인상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기관의 우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식량작물과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전에서는 쌀 가공품 6점 및

가공품 4점, 콩 가공품 2점, 그 외 잡곡으로 만든 가공품 및 식물체 등 12점이 전시된다. 대표적으로 △가루쌀로 만든 카스텔라와 맥주 △유색밀 허리혹 통밀가루와 '새금강'으로 만든 국수 △새싹보리 관상용 고구마·딸기 화분 △콩·수수·팥 등 기능성 잡곡차 등 다양한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 기간에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획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현장 임무(미션)를 수행하면 캐릭터 스티커를 제공하고, 관람 후 식냥이가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된 개인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

재래식 기기로 튀긴 빵튀기 시식 행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에 진행된다. 관람



을 마친 후 제공하는 식냥이 종이책을 가져가면 우리 쌀 밭, 콩 품종으로 튀

긴 빵튀기를 맛볼 수 있다.

이번 '어서와 식냥이 방은 처음이지?' 특별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운영 및 관람 안내는 농업과학관 누리집(www.rda.go.kr/aehBoard/aeh_intro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서효원 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 캐릭터 '식냥이'는 농업 기관의 역할과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략 중 하나로 기획했다"라며, "농경사회에서 저장된 식량을 축내는 쥐를 사냥하며 공간 지킴이로 활약해 온 고양이가 국립식량과학원의 캐릭터 '식냥이'로 재탄생하여 앞으로 농업을 위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활약을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축산물 유통혁신에 기여할 것”

전북농협, 경제사업 추진 추진 총력 다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상반기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앞서 19일 농협전북본부에서 경제사업 추진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사업 추진으로 농축산물 유통혁신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해 지역본부 경제사업 전 직원이 참석 한 가운데 상반기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각 단 및 개인별 핵심사업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칭찬받는 전북농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상반기 전북농협은 농업인의 편리한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팜 대상농가 8개소 추가 발굴과 양곡창고 85개소, 자재센터 14개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쌀 적정 생산 추진 전국 1위를 달성해 쌀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하고 신동진 대체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단지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전북 쌀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북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농협 계통매장과 대형마트 오프라인 행사 및 전북 생생장터, 라이브커머스 등의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농협은 고향사랑 답례품 홍보관을 리뉴얼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협 경제사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선순환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농업인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우리 스스로는 농협다운 협동조합 구현으로 칭찬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중기중앙회, 정부와 원팀으로 경제활성화 의지 다져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제를 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중소기업에 첫 방문이다.

이날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이태형일 기획재정부 차



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배조용·

간담회에서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확대 등 22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경호 부총리는 취임 후 4차례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 중 하나인 기업승계 제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며, "계획적 사전 승계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경진대회 개최... 부정수급 근절 계기 '기대'

부정수급 예방·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등 4개 주제 9개 기관 시상... 내달 16일까지 접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품질 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2011년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지원 방문조사, 사후관리, 활동지원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활동지원서비스 우수 실무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환

동지원기관과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부정수급 예방 활동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 사례 △이용자 사례관리 △이용자 모니터링 네 가지로 응모일 현재 운영 중인 활동지원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s://www.dhservice.or.kr>) - 행사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응모는 응모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pst@npso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독창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총 9개 기관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상(1개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3개소), 장려상(5개소)과 상금(총 7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현장의 우수 실무사례를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나아가 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지원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북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 중인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19일부터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입주 신청자격은 전북지역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6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단, 도박·투기 등 사행성 조장업종 및 불건전업종, 금융·보험·주점·숙박·유흥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JB인문학 강좌

정읍 서영여고서, 공공소통 크리에이터 켈리장 초청 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원) 후원으로 운영하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8일 정읍 서영여고등학교에서 제68회 '2023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공공소통 크리에이터 켈리장을 초청하여 공공캠페인과 도시재생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켈리장은 상호간의 소통을 돕는 장치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였던 사례들

을 학생들과 공유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프로젝트인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숲길 '엔트럴파크' 내 소음 문제를 해결한 'I want to fall asleep(자고 싶어요)' 캠페인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조용히 하세요' 같은 경고문이 아닌 공원 이용자들이부터 공감을 이끌어내서 행동의 변화로부터 문제를 해결한 프로젝트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